

# <난독증 부모용 가이드>

Dyslexia Guide for parents

## 목차

1. 난독증은 언제 의심하나요?
2. 난독증 선별 체크리스트
3. 난독증 진단은 어떻게 받나요?
4. 난독증 진단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5. 난독증 평가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 난독증 어떻게 치료할까?
7. 난독증 치료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8. 난독증 아동에게 집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 1. 난독증은 언제

\* 아동마다 다양한 발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는 난독증을 시사하는 증상들을 항상 정확하게 빨리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수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난독증이나 학습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종합적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들을 유아기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현재 몇 살이든지 간에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다 낫다.

\* 난독증을 시사하는 발달 단계 별 초기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학령전기	말하거나 언어발달장애의 병력 말소리를 이용한 게임에 관심이 없음 동요 배우기를 힘들어함 혀 짧은 소리(baby talk)가 늦게까지 지속 말소리를 어절로 분절시키지 못함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사진이나 사물을 보여주었을 때 사물의 이름을 빨리 말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색깔, 모양, 낯익은 사물 또는 동물)
학령기 초기	단어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낌 아주 익숙한 단어 외에는 읽지 못함 받침이 있는 단어는 읽지 못함. 글자의 모양과 무관한 읽기 오류가 많음 베껴쓰기는 되나 받아쓰기는 안 됨 단어 속 자음, 모음의 순서를 헷갈림 글자와 소리 간의 대응 관계를 학습하는 속도가 느림 글자의 좌우 뒤바뀜(b/d)과 상하 뒤바뀜(u/n) 단어를 소리 내어 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 결여 읽기 과제에 어려움을 느낌 아동이 스스로 읽을 때보다 읽어주면 훨씬 잘 이해함 정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느낌 특히 구구단과 같은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느낌 수학기호(+와 -같은 기호 혼동)에 어려움을 느낌 시간 개념(전, 후와 같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등) 이해에 어려움을 느낌 방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학령기 후기	다음절어나 외래어를 읽을 때 오류가 많음. 소리가 비슷한 단어끼리 혼동

	<p>날짜, 사람 이름, 전화번호를 외우기 힘들어함</p> <p>시간 내에 과제 수행이 안 됨</p> <p>읽기 이해력이 부족</p> <p>조사 등 기능어에 대한 이해 부족</p> <p>철자법이 자주 틀리고 작문 능력이 부족</p> <p>책 읽기를 싫어함.</p> <p>빈약한 일견 단어 어휘량</p> <p>어원, 접사, 철자 패턴과 같은 철자법 전략 학습에 어려움을 느낌</p> <p>수학 문장제 문제에 어려움을 느낌</p> <p>일어난 사건을 회상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p> <p>말로는 자기 표현을 훌륭하게 하나 글로는 어려움을 느낌</p>
<p>청소년기 및 성인기</p>	<p>느리고 힘겨운 읽기</p> <p>음독해야만 이해가 가능하거나, 묵독해야만 이해 가능</p> <p>자세하게 읽기보다는 대충 읽는 경향이 있음</p> <p>설명문의 읽기 이해력과 논술 능력의 부족</p> <p>취약한 철자법</p> <p>취약한 작문</p> <p>읽기 또는 쓰기 속제를 피함</p> <p>요약하는데 어려움을 느낌</p> <p>취약한 기억력</p> <p>일 처리 속도가 느림</p> <p>일을 정리하고 과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p> <p>읽기와 쓰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의 학습에 어려움을 느낌</p> <p>외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낌</p>

## 2. 난독증 선별 체크리스트

\* 난독증의 위험징후들을 모아서 한국학습장애학회에서 2014년에 만든 도구로서 27문항으로 되어 있다. 아니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으로 채점해서 모두 합산한 총점으로 난독증의 위험도를 판단한다. 총점이 38점 이하이면 위험하지 않음, 39-42점이면 약간 위험 43-57은 위험, 58점 이상은 매우 위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1	지능은 정상으로 보이나, 읽기/쓰기(철자)를 또래 학년 수준 만큼 잘 하지 못한다. ( '지능은 정상 : 지적 장애가 없고, 학습이외의 활동이 또래와 비슷함)			
2	지능이 정상으로 문제를 읽어주면 잘하나, 혼자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잘 하지 못한다.			
3	들은 내용을 즉시 전달하거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 말 전하기 등)			
4	말을 할 때 단어를 잘못 발음하거나, 음절, 단어, 구의 순서를 바꾸어 말한다.(예: 로그인->그로인, 노점상->점노상 등)			
5	말을 할 때 많이 머뭇거리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한다. (예: 음, 아, 저기, 그거 있잖아요 등의 잦은 사용).			
6	특정 받침 발음에 문제를 보인다. (예: '반을 잘라' 를 '바느 잔나' 로, '박아' 를 '박아' 로 말함).			
7	구어적 지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8	읽을 때 단어에서 글자를 빼뜨리거나 첨가하여 읽는다.			
9	여러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 낱설고 복잡한 단어들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 초코쿠키→초코쿠구, 콘 푸로스트 →콘 프로로 읽거나 복합명사인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 웰빙 파프리카 버거 등을 발음하기 어려움)			
10	글자에서 낱자와 소리 간의 관계를 모른다. (예: '가' 에서 'ㄱ' 의 소리가 '그', 'ㅏ' 를 '아' 로 소리 내는 것을 모른다.)			
11	단어들을 소리나는 대로 읽지 못한다.(예: '값이' 를 '갑시' 로, '국물' 을 '궁물' 등 소리나는 대로 읽지 못하고 '값이' 를 '갑이' 로, '국물' 을 '국물' 등 글자 그대로 발음 한다.)			
12	단어를 쓸 때 글자를 생략, 대체, 첨가, 중복 또는 순서를 바꾸어 쓴다.			
13	단어 내에서 소리의 조합, 대체 및 분리 등에 문제를 보인다. (조합: ㅋ + ㅏ + ㅍ = '콩' ; 대체: '가지' 에서 'ㄱ' 대신 'ㅂ' 을 넣을 때 '바지' ; 분리: '차' 가 'ㅈ' + 'ㅏ' 로 된다는 것 등을 모른다.)			
14	같은 소리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단어를 잘 찾지 못한다. (예: '리' 자로 끝나는 말은?)			
15	글을 읽기 위한 음운(자음과 모음) 인식에 문제가 있다.			
16	또래에 비해 글을 소리 내어 유창하게 읽지 못한다.			
17	짧은 단락(문단)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			
18	국어 성적이 아주 낮다.			

19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 '무령왕릉' 처럼 어려운 단어를 배우고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0	흔히 보는 어휘들을 빨리 파악하지 못한다. (예: 당기시오, 미시오, 계단주의, 우측통행 등)			
21	좌우, 상하 등의 방향 감각 및 공간지각에 어려움이 있다.			
22	책을 읽을 때 어지러움, 두통, 배 아픔 등을 호소한다.			
23	읽는 것을 꺼려하고 어려워하거나 공포를 나타낸다.			
24	책을 잘(많이) 읽을 수가 없어서 또래에 비해 배경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25	듣기 이해력이 읽기 이해력보다 더 나은 것 같다.			
26	가족 중에 읽기학습이 어려웠던(난독증) 사람이 있다. (*난독증은 읽기학습에 특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상담 시에 파악된 내용에 따라 체크해 주세요.)			
27	음악, 미술, 연기/연극, 스포츠, 조작활동 등 한 영역 이상에 소질이 있어 보인다.			

### 3. 난독증 진단은 어떻게 받나요?

- \* 우리집과 가까운 난독증 진단기관은 [링크](#)를 눌러서 찾아볼 수 있다.
- \* 아이를 오래 돌본 사람이 진단과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난독증 검사도구들과 진단과정에 대해 잘 알면 좋다.
- \* 진단과정에서 중요한 것 3가지.

첫째 해독 능력이 부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해독 능력검사 결과(학생에게 글을 읽어보라고 한 다음 속도와 정확도를 평가한 점수)가 동년배 학생 100명 중에서 정해진 기준(90등 이하 혹은 84등 이하일 때)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다.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이 20여 명이라면 2~3명 정도가 읽기가 늦다고 판정된다는 뜻이다.

둘째 해독을 힘들어하는 아이 중에서 그냥 충분히 교육하지 못해서 읽기가 힘든 아이와 교육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뇌의 문제로 늦은 아이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글 공부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타고난 문제 때문인지는 병력 조사와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난독증 검사에는 읽기, 쓰기 성취도 검사 말고도 이러한 신경심리검사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습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읽기, 쓰기에만 국한된 학습능력의 부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웨슬러 지능검사 상 지능지수가 70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아동은 처리속도와 작업기억력 저하 때문에 지능지수가 낮아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언어이해력과 지각추론력만 모아서 계산한 지수인 GAI 지수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 \* 제대로 된 난독증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들어있다.

1. 의미 단어와 무의미 단어 소리 내어 읽기 (정확도와 속도)
2. 단락 소리 내어 읽기 (정확도와 속도, 운율)
3. 받아쓰기 검사
4. 음운인식능력검사
5. 빠른 이름대기,
6. 작업기억력 검사( 숫자, 문장 따라하기)
7. 비단어 따라 말하기
8. 지능검사

#### 음운인식능력검사의 예

##### 1. 변별 검사

###### (1) 음절 변별 검사

"나비, 나방, 다방" 중에서 첫 번째 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이지요?(정답 다방)

"공장, 한강, 사장"중에서 끝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이지요? (정답 한강)

###### (2) 음소 변별 검사

"칼, 컵, 길" 중에서 처음 나는 첫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정답 길)

"학, 펍, 흑" 중에서 처음 나는 첫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정답 펍)

##### 2. 합성 검사

(1) 음절 합성 검사

/박/소리에 /수/소리를 합하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정답: /박수/)

/발/소리와 /짜/소리와 /국/소리를 합하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정답: /발짜국/)

(2) 음소 합성 검사

/s/(ㅅ) 더하기 /i/(ㅣ)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 (정답 /시/)

/그/(ㄱ) 더하기/오/(오) 더하기 /음/(ㅁ)소리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정답: 공)

3. 분절 검사

(1) 음절 분절 검사

"연기"를 각각의 소리로 나누어 말해 보세요. (정답 연+기)

(2) 음소 분절 검사

"껌"을 가장 작은 소리로 나누어 말해보세요(/끄/ /어/ /음/)

4. 탈락 검사

(1) 음절 탈락 검사

"국자"에서 /국/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을까요? (정답 자)

(2) 음소 탈락 검사

"쇠"에서 /스/(ㅅ)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을까요?(정답 /외/)

"꼭"에서 /으/(ㄱ) 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을까요? (정답 /꼬/)

5. 대치 검사

(1) 음절 대치 검사

"파리"에서 /파/를 /머/로 바꾸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정답 머리)

(2) 음소 대치 검사

"개"에서 /그/(ㄱ)를 /흐/(ㅎ)로 바꾸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정답 /해/)

"굴"에서 /을/(ㄹ)을 /은/(ㄴ)로 바꾸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정답 /군/)

\* 5번 항목에 나온 빠른 이름대기 검사의 예를 들면 1-5까지의 숫자를 무작위로 50개 배열 해놓고 얼마나 빨리 읽는지 알아보는 검사나 해, 컵, 공, 개, 책을 표현하는 그림 50개를 무작위로 배열해놓고 얼마나 빨리 읽는지 알아보는 검사이다. 글자를 전혀 모르는 아이도 검사할 수 있는데 글을 느리게 읽는 아이는 대부분 숫자도 그림도 느리게 읽는다. 숫자든 글자든 그림이든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보고 알아챈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뇌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게 아니라 공부할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는 빠른 이름대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온다.

\* 비단어 따라 말하기는 예를 들어 “구떼츠포” 라는 무의미한 말을 불러주고 그대로 따라 하게 해보는 검사이다. 한글이 늦은 아이는 “두테즈포, 두께츠포, 구떼포스” 등 여러 번 따라하게 해보아도 정확하게 따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귀가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뇌에 구/두/부 라는 소리의 정확한 샘플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구/ 로도 /두/로도 /부/로도 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리의 정확한 샘플이 없으면 우리가 아이에게 ‘구’ 라는 글자를 /구/라고 읽어주어도 /구/ 로도 /두/로도 /부/로도 일관성 없이 듣고 기억했기 나중에 혼자 글을 읽을 때에도 전혀 자신이 없다.

\* 신경심리검사 결과와 학업성취도 검사, 웨슬러 지능검사 결과, 아이가 학교나 집에서 보이는 모습을 종합하면 난독증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 4. 난독증 진단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Q1. 아이가 난독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검사결과와 설문 결과만 잔뜩 나와 있고 위에 말한 검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믿어도 됩니까?

- 아니요. 위에 나오는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적인 진단을 받지 못하면 치료과정도 달라집니다.

Q2. 아이가 난독증이 아닐까요 질문했더니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 아니요. 그 어떤 전문가도 위에 나오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자신있게 난독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음운인식능력이 괜찮아서 난독증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절대 아니다는 얘기를 들었던 난독증 학생은 매우 많습니다.

Q3. 아이에게 ADHD가 있습니다. 아이가 한글 읽기가 약한 것이 ADHD 때문인지 난독증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위에 나온 신경심리검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DHD 증상은 자리에 앉히기 힘들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독능력에는 거의 영향을 안 끼치며, 쓰기에 중간 정도 영향, 독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ADHD 때문에 한글 습득이 늦다고 판단하고 난독증 치료를 미뤄서는 안됩니다.

Q4. ADHD약을 먹고 한글 읽기가 훨씬 수월해진 아이도 ADHD 때문에 한글이 늦은 게 아닌가요?

- ADHD 약은 ADHD 증상도 호전시키지만 난독증 학생이 장기 기억으로부터 인출을 호전시키므로 수행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핵심 결함인 음운인식능력을 훈련하거나 체계적인 글자-소리 대응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읽기가 어느 정도 정확해진 후 읽기 속도의 발달이 매우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아이가 지능지수 65로 경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난독증 증상에 해당하는게 많고 읽기,쓰기도 매우 느린데 이런 경우 지능 때문에 학습이 느린 건가요? 아니면 난독증 때문에 그런건가요?

- 경도 지적장애 학생이 한글이 유난히 느린 경우 지능보다는 난독증 성향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능지수가 70 이하일 때 난독증으로 진단하지 않는 것은 난독증 성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난독증 진단을 위한 신경심리검사서 난독증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난독증 치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다니던 센터에서 약식으로 난독증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능검사 같은 것은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난독증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식 진단 절차를 밟은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 당장 치료를 시작한 후 정식적인 진단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Q7. 지금까지 한글을 너무 못 봐준 것 같아서 지금 검사하면 난독증이 나올까 무섭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같이 해본 다음, 진단 절차를 밟아도 될까요?

- 난독증 검사는 타고난 부분과 학습하여 쌓인 부분을 구별하여 평가합니다. 공부를 안 했다고 난독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글 공부를 심하게 거부하는 것이 난독증을 매우 의심하게 하는 양상입니다. 또 난독증 치료가 늦어지면 나중에 읽기 속도가 정상이 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 5. 난독증 평가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읽기, 쓰기 학업성취도와 신경심리검사를 모아놓은 다양한 검사집이 나와있다. 보통 하나의 지능검사와 하나의 검사집을 이용해서 검사한다.

검사집	검사 특성
해피마인드 종합학습능력검사-읽기 (CLT-R, 해피마인드 2014)	전산화 검사 평가수준 : 유치원-중3 평가영역: 읽기(읽기성취도, 읽기 관련 인지처리능력),
난독증진단-평가도구 (KORLA, 배소영 등 2015)	평가수준 : 초1- 초6 평가영역: 해독, 읽기이해, 음운처리능력, 쓰기능력
웍슬러기초학습기능검사(K-WFA, 홍상환 등 2015)	평가수준 : 유치원- 고1 평가영역: 낱말 읽기, 읽고 이해하기, 쓰기, 셈하기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 이태수 등 2018 )	- 평가 수준 : 만 5세에서 만 14세 평가 영역: 읽기, 수학, 쓰기
읽기성취 및 읽기인지처리능력검사 (RARCP, 김애화 등 2014)	-개별화 검사 -평가수준 : 초1- 초6 -평가영역: 읽기성취도, 읽기관련 인지처리능력, 읽기이해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 체제(BASA) BASA-읽기(김동일 2008)	-개별화 검사 -평가 수준 : 아동/청소년 -평가 영역: 읽기(문자해독, 유창성)

### 지능검사

- \* 심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능검사들은 다음과 같다.
- \* WPPSI (웍슬러 유아지능검사)
- \* WISC-IV(웍슬러 아동용 지능 척도)
- \* WAIS-IV(웍슬러 성인용 지능 척도) (16세~90세)

## 6. 난독증 어떻게 치료할까?

### 6.1 난독증의 올바른 치료

- \* 난독증 학생들은 대부분 음운인식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단어를 음소로 분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도를 해주면 읽기를 힘들게 하는 주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 \* 단어를 음소로 분절하는 것을 배운 아동들은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 \* 미국 국립 읽기 위원회가는 수천 건의 연구를 검토한 후 읽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2000년 4월 보고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음운인식훈련과 체계적인 발음중심 교수법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 지도하 반복읽기훈련은 읽기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이다. 아동들은 소리 내어 읽어야만 틀린 부분을 지적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유창하게 읽게 된다.
  - 독해 기술과 전략 적용에서 아동들은 지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아동들은 자신들이 읽는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 검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난독증 아동과 읽기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는 읽기에 관여하는 뇌영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읽기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은 관련 뇌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다.

### 6.2 음운인식훈련

- \* 대체로 한글이 늦은 아이들은 초성부터 받침까지 모두 완전하게 모르는 아이들과 초성과 단모음은 잘 알고 받침 중의 몇 가지와 이중모음 중 몇 가지를 혼동하는 아이들로 나눌 수 있다. 초성도 모르는 아이는 음절 인식 훈련이 필요하고 받침만 모르는 아이는 음소 인식 훈련부터 시작한다.
- \* 음절 인식이 온전하지 않다면 음절 인식 훈련을 충분히 시행한 후이어서 음소 인식 훈련을 하고 초성의 소리값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음절 인식을 충분히 잘한다면 음소 인식 훈련부터 하면 된다.
- \* 음절 인식의 예를 들면 /자동차/ 를 소리로만 들려준 다음 세 개의 소리로 나누어 보라 하면 /자/ /동/ /차/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음절 인식이다. 잘 못하는 아이는 /자//동//차/로 잘 못 나누기도 하고 /자//동//차/ 또는 /자//공//차/로 조금 다르게 나누기도 한다. 어머니가 '자동차'라는글자를한 글자씩 손가락으로 짚으면서읽어줄때에도 아이의 귀에는 /자//공//차/로 들리니 글자를 배울 수가 없다.그래서 음절 인식이 되는 수준의 아이에게만 글자공부를 시킬 수 있다. 음절 수준이 된다면 좀 더 나아가서 위의 그림처럼 /라면/ 과 첫소리가 같은 것이 /사자/인지 /로봇/인지 아는지 말로 물어본다. /라면/과 /로봇/의 공통적인 앞부분의 소리가 /r/=/ㄹ/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ㄹ'의 소리값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음소 인식이 안 되면 'ㄹ'의 소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는다.

#### 음소인식 훈련의 예

1.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할 거예요. 내가 먼저 단어를 천천히 말하면 00이는 그 단어를 맞춰보세요.
2. 단어를 천천히 불러준다. (예: ㄱㄱㄱㄱ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이게 무슨 단어죠?
3. 아동이 '강'이라는 단어를 맞출 때까지 연습을 계속한다.

#### 6.3. 낱자-소리 대응(파닉스) 교육

- 한글을 배우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문자를 이용한 음운인식훈련과 낱자-소리 대응 관계에 대한 교육을 함께 병행한다. 소리를 변별하여 듣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일부 학생의 경우 음운인식훈련을 충분히 실시한 후 낱자의 소리값에 대해 교육한다.
- 낱자와 소리의 대응관계를 배운 후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단어를 읽는 연습을 하는데 이를 해독훈련 또는 자모읽기(phonic decoding)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학생이 모르는 낱자를 읽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럴 경우 학생에게 추측해서 읽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해독훈련의 초기는 음소합성 훈련과 유사하다.

#### 해독 훈련의 예

1. 칠판에 '강'이라는 1음절 단어를 쓴다 (자석글자를 이용해도 좋다)
2.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단어를 읽어 볼게요. 내가 글자를 짚을 때 그 글자의 소리를 내 볼게요. 다음 글자를 짚기 전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낼게요." 소리가 나는 문자소를 차례대로 짚어가며 소리 내는 것을 시범을 보인다. (예: ㄱㄱㄱㄱ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3. 이번에는 아동과 함께 소리를 내며 각 문자소를 순서대로 짚어보게 한다.
4. 아동 스스로 소리를 내며 각 문자소를 순서대로 짚어보게 한다.

\* 파닉스 학습을 할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글자를 가르칠 때 글자 이름과 음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ㄱ’의 이름은 /기역/ 이고 음가는 /g/이다. ‘ㄱ’의 이름이 ‘기역’이긴 하지만, 이름은 책 읽을 때는 도움이 안 되니까 진짜 ‘ㄱ’의 소리를 공부할 거라고 얘기해 주면 좋다.

‘ㄱ’은 /그/라고 소리 난다고 말해준다. 이 때 ‘그’라는 글자를 읽을 때처럼 /으/ 라는 모음 성분을 제대로 발음해주면 안 되고, 모음의 소리를 아주 짧게 발음해서, /으/ 발음도 아니고 /어/ 발음도 아니고 영어에서 강세가 없는 음절에 오는 약모음(schwa)처럼 해주면 좋다. ‘ㄴ’은 /느/라는 소리가 나고 ‘ㄷ’은 /드/처럼 발음하는 식이다.

둘째, 파닉스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자음, 모음의 낱자를 보고 정확한 소리와 연결하여 기억하는 방법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몸동작, 그림, 입모양 등 다감각적 방법을 활용한다.

셋째, 차례로 진행한다. 초성 몇 개와 모음 몇 개 씩 학습하다가 받침없는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받침과 이중모음의 소리값을 배우고 소리나는 대로 읽히는 단어만 가지고 연습한다. 소리나는대로 읽는 단어의 읽기와 받아쓰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음운현상 별로 읽기와 받아쓰기를 실시한다.

#### 6.4. 유창성 훈련

\* 유창성에 문제가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개입이 늦어져서 읽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다. 다음으로 개입을 했더라도 낱자의 소리값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학생이 추측읽기를 지속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 난독증 학생의 읽기 정확도가 95퍼센트 이상이라면 유창성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과거 지도하 소리 내어 반복읽기 훈련(Guided Repeated Oral Reading)이 추천되었는데 최근에는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같은 글을 반복해서 읽지 말고 다양한 글을 읽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지도하 소리 내어 연속 읽기가 추천된다.

\* 이러한 훈련은 아이들의 읽기능력 향상에 있어서 적어도 5학년까지는 도움이 되며,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그 이후까지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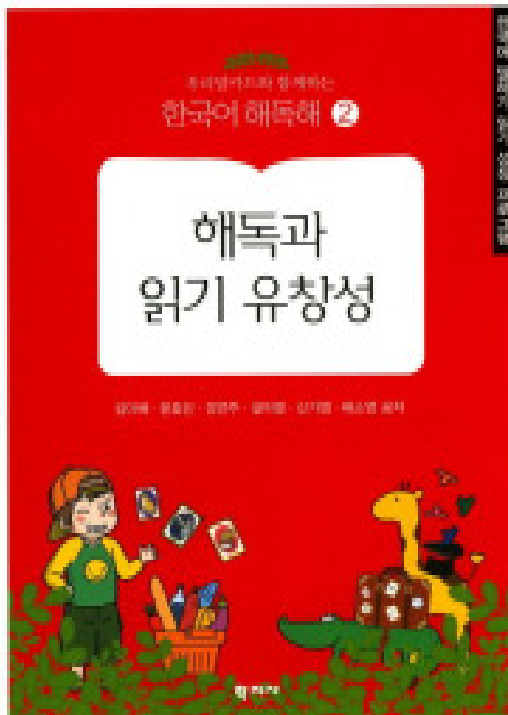
\* 유창성 훈련 수업은 1회당 약 15분 정도 실시한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에게 편안한 수준의 지문을 읽는 것이다. 아이들은 20개의 단어 중 약 19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책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부모가 읽어줄 때는 더 어려운 글을 읽어주어도 된다.

#### 6.4 난독증 치료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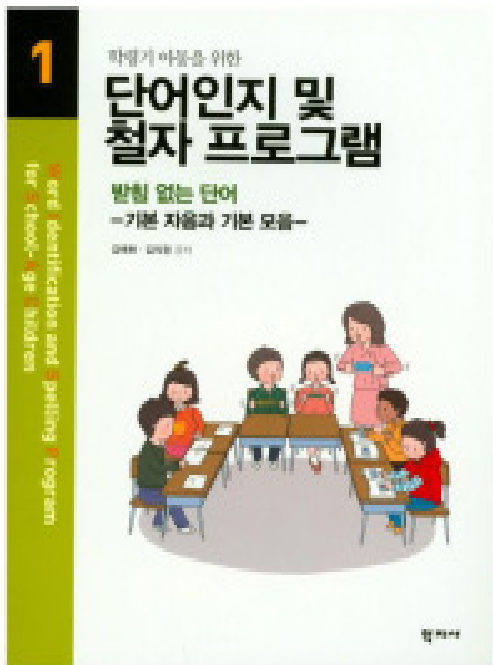
이러한 치료적 중재는 읽기교수법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학습치료사나 언어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6.5. 난독증 교재

- 우리말 카드와 함께 하는 해독과 읽기 유창성 (김미배, 윤효진, 정연주, 설아영, 신가영, 배소영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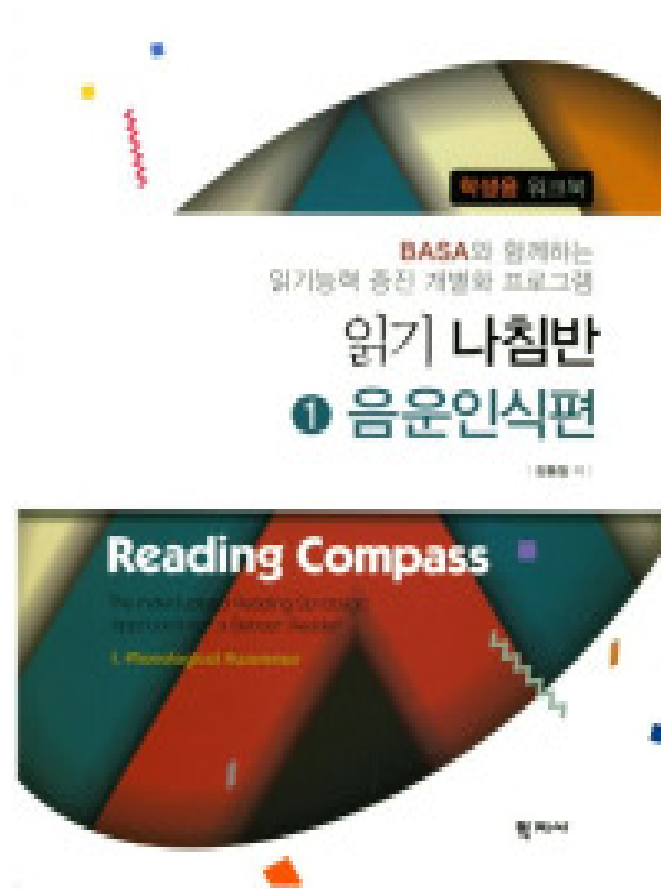
- 학령기 아동을 위한 단어인지 및 철자 프로그램 전 6권( 김애화, 김의정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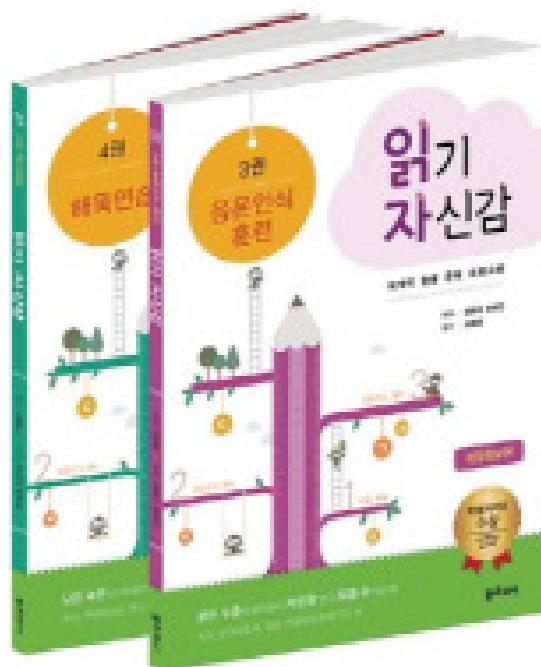
읽기 유창성 및 읽기이해 프로그램 전 3권 (김애화, 김의정 저)



- 읽기나침반 전 4권- Basa와 함께하는 읽기능력 증진 개별화 프로그램(김동일 저)



- 읽기자신감 전 6권( 정재석, 이춘화, 장현진, 곽신실 저)



-따스함 기초편 2권 실력편 4권(좋은교사운동 배움찬찬이연구회 저)



한글해독용 한 줄 읽기책 총 2권( 이정원 저)



## 7. 난독증 치료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 7.1 초기에 나오는 질문들

Q 보통 치료는 얼마나 걸리나요?

아이마다 다르지만 보통 1-3년 정도 걸립니다. 치료의 목표는 아동의 읽기 정확도가 98퍼센트 이상되어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기는 하나 잘 쓰지 못하고 느리게 읽는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치료를 합니다.

Q 치료는 얼마나 자주 해야합니까?

보통 주 5회 회당 100분씩 다시말해 일주일에 500분을 읽기 쓰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독증이 충분히 빨리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교육시간이 부족해서입니다. 주 500분의 교육시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수업이 주 1-3회 중 어느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Q 아이는 아직도 글을 읽을 때 조사를 생각하고 어미를 바꿔서 읽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읽기가 귀찮아서 대충해서 그럴까요?

둘다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읽는데는 의지나 집중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직 아이의 읽기가 집중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동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이가 낱자의 소리값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읽다보니 추측읽기나 건너뛰며 읽기를 하는 습관이 계속 남아서 그러합니다. 비단어 읽기처럼 추측읽기 습관을 고치는 세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Q 아이가 읽기 공부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이가 읽기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당장 재미있고 흥미를 끄는 일에만 몰두하는 ADHD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읽기 불안이 학습 거부 의 원인입니다. 과거 읽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치심과 긴장이 누적되면서 읽기를 할 때만 유독 생리적 각성이 올라가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 7.2. 센터 치료 관련 질문들

Q 아직 아이의 정서가 불안하여 심리치료를 먼저 시행하여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한글 학습은 미뤄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정서가 안정될 때까지 미루면 늦습니다. 정서와 학습 모두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한글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면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므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서 안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Q 아이는 시지각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고 소근육 발달도 더딘 편입니다. 시지각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970년 때까지 한글이 어려운 것이 시지각 문제가 아닐까 하여 시지각 훈련을 많이 해왔지만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능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한글 습득을 위해 시지각 훈련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집중훈련, 청지각 훈련, 소근육 훈련 등을 난독증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센터는 선택하실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우리 아이는 아직 한글을 못 읽어서 걱정인데 지금 다니는 센터에서는 아이의 화용언어와 이해력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한글 교육은 아주 작은 시간만 하고 말하기 훈련과 독해력 훈련을 많이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한글 해독능력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스스로 읽기가 가능해야만 향후 어휘력, 독해력이 빨리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해독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읽기 연습을 하다보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어휘력 학습의 기회가 있습니다.

### 7.3. 받아쓰기 관련 질문들

Q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이에게 내일 시험 볼 부분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써보라고 하고, 이어서 엄마가 불러주고 잘 받아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받아쓰기 성적은 좋은데 평소 맞춤법 실수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 잘못된 받아쓰기 방법입니다. 아이는 시험 볼 부분을 베껴 쓰면서 사진을 외우듯이 시각 기억으로 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운 것은 하루 이틀 후면 잊어버리게 된다. 반대로 아이가 시험 볼 부분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불러준 것을 받아쓰는 것으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Q '생활'이라는 단어를 불러주었더니 아이가 '생'은 잘 쓴 다음 "엄마, '활'은 어떻게 써?"라고 물어서 '활동' 할 때 '활'이잖아, 또는 '화'에 '리을'이잖아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시처럼 하는 것을 '통글자 단서'를 준다고 합니다. '닌'자를 어떻게 쓰냐 물으면 '닌텐도' 할 때 '닌'이라고 말해주는 것인데, 단어를 통째로 기억하는 습관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화에 리을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받아쓰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대신 ㅎ-ㄱ-ㅏ-ㄹ 하는 식으로 단어의 자음, 모음을 늘려서 발음해주면 좋습니다. 하나하나 끊어지면 안 되고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해 주면 됩니다.

받아쓰기의 핵심은 어떤 소리를 듣고 더 작은 단위로 분절한 다음, 하나하나 자음모음 글자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작은 단위로 분절해서 쓸 수 있어야 처음 듣는 단어도 글자로 바꾸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면 우리말 맞춤법은 96% 이상은 외우지 않고 쓸 수가 있으며, 예외적인 맞춤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와 '배'를 구별해서 쓰는 상황, 'ㅅ'과 'ㅆ'을 쓰는 상황, 겹받침을 쓰는 상황은 물론 일일이 외워야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단어의 맞춤법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Q '컴퓨터'를 받아쓰기하라 하니 '컴퓨터'라고 받아쓰기한 경우 '처'가 아니고 '터'라고 하면서 'ㅌ'으로 고쳐쓰라고 하면서 좀더 집중하라고 말해준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이가 저지르는 이 실수를 '낱자-소리 대응의 부정확'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낱자의 소리값 지식이 아직 완전치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장이나 단어 수준의 받아쓰기를 하거나 일기, 독서록 같은 것을 쓸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아이는 일단 연필을 내려놓고 어릴 적 쓰던 자석글자 모형을 준비해서 '터'라고 불러주고 모형으로 만들어보게 합니다. 잘 만든다면 다음에는 모음은 그냥 두고, 자음만 바뀌는 퍼,허,버,머 같은 글자를 차례로 불러줍니다. 이어서 자음은 그냥 두고, 모음만 바뀌는 글자나 받침만 바뀌는 글자를 불러주면 좋습니다. 아이가 어떤 글자든 척척 만들 수 있을 때 단어수준 받아쓰기를 할 수준이 된 것입니다.

Q '쫓아가서'를 받아쓰기시켰더니 '쫓아가서'로 받침을 틀리게 쓴 경우, 지우고 다시 '춧'으로 쓰라고 했는데 계속 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계속 틀릴 확률이 높는데 철자를 틀린 이유는 실수가 아니라 연음법칙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읽을 때 '쫓아가서'를 /쫓차가서/로 정확하게 연음해서 읽었더라도, 1:1로 대응시킨 게 아니라 4:4의 대응을 시킨 것입니다. 악보를 보고 음표대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악보의 앞부분만 보고 연주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르면 악보를 안 봐도 연주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악보를 보고 연주할 때는 힘들어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춧' 받침이 /쫓차가서/에서 /춧=ch/이라는 발음 성분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없다면, 쫓기는, 쫓는 등의 단어에 나오는 '쫓'이라는 성분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의미의 확장이 되지 않아, 이해력과 어휘력의 발달이 더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8. 난독증 아동에게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것

### - 미국 부모용 가이드에서 제시한 내용

- \* 미래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희망과 낙관
- \* 아동 자신에 대한 신뢰
- \* 지속적인 지원, 격려와 지지
- \* 아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도움이 뭔지 알기
- \* 난독증 학생들에 특화된 지식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도 방법을 사용하는 전문 교사
- \* 일반 교육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편의제공과 배려
- \*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노력 (예, 조기 선별의 필요성과 적절한 치료)
- \* 학습능력을 키우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치료의 강도와 횟수
- \* 적응에 필요한 융통성과 의지
- \* 난독증에 대한 지식(무엇이 난독증이고 무엇이 아닌지)과 도움이 되는 전략과 치료에 대한 지식
- \* 최신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자료(책, 교육, 학회, 웹사이트)를 이용
- \* 기존 프로그램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개인의 필요성에 맞는 프로그램들
- \* 아동이 좌절감을 느낄 때 그에게 많은 장점과 재능이 있으며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사람
- \* 자신감과 자존감 형성 지원
- \* 굴욕감, 당혹감 또는 상처(예를 들어 게으르다, 동기부여가 안 된다, 부주의하다)를 줄 수 있는 말들을 조심하기
- \* 아동의 감정, 흥미와 재능을 양성,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노력
- \* 아동의 흥미와 재능에 부합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예, 미술, 음악, 연극, 운동)
- \* 아동이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조심스럽게 스스로 하게 놓아둠
- \* 밀접한 대화와 정보교환 (집과 학교 사이 뿐 아니라 개인지도 교사, 치료자와 기타 치료 제공자 간에도)

### 8. 추천 동영상

- 2-1. 난독(읽기곤란)증 진단에 대한 이해 (1부) <https://youtu.be/QaW3h6d7NfU>
- 2-2. 난독(읽기곤란)증 진단에 대한 이해 (2부) <https://youtu.be/xjvgB5RVG6I>
3. 난독(읽기곤란) 학생 지도 방법 <https://youtu.be/NNpbqoLkW4I>
4. 난독(읽기곤란) 학생 지원 방법 <https://youtu.be/dm24DwTLsb0>
5. 난독증의 오해와 올바른 이해 <https://youtu.be/tA27PvRHMwM>